



보도 일시	2022.1.27.(목) 16:45(회의종료시) 이후 사용		배포 일시	2022.1.26.(수)	
비 고	* 국무총리 모두발언 별도 배포			# 공동배포 : 기재부, 외교부	
담당부서	<총괄>	국무조정실 개발협력총괄과	담당자	과장 장원석, 사무관 임효진 (044-200-2148, 2161)	
	'22년 종합시행계획	국무조정실 개발협력총괄과		과장 장원석, 사무관 이민숙 (044-200-2148, 2159)	
		국무조정실 사업연계조정과		과장 조민호, 사무관 강현수 (044-200-2164, 2166)	
	과학기술·ICT ODA 추진전략	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전략과		과장 최병석, 사무관 선우세원 (044-200-2157, 2207)	
	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	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전략과		과장 최병석, 사무관 정인희 (044-200-2157, 2158)	
	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확대 방안	국무조정실 평가기획과		과장 양상근, 전문위원 송지혜 (044-200-2074, 2078)	
	'22년 평가계획	국무조정실 평가기획과		과장 양상근, 사무관 김형관 (044-200-2074, 2076)	
	<유상 주관기관>	기획재정부 개발금융총괄과		과장 지광철, 사무관 허성용 (044-215-8710, 8713)	
	<무상 주관기관>	외교부 개발전략과		팀장 강윤희, 행정관 송혜원 (02-2100-6971, 6974)	

## 김부겸 국무총리,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재

### 개도국의 경제·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는 “성장 사다리” 역할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!

올해 ODA 규모 **4조 425억원**(전년대비 7.7%↑), **사상 최초로 4조원** 돌파  
개도국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**과학기술·ICT ODA 추진전략** 수립  
지속가능한 ODA 생태계 조성을 위한 **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확대방안** 마련

#### ◆ '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(44개 기관, 1,765개 사업)

- 높아진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게 코로나19·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 선도
- 패키지사업 활성화, 개발재원 다양화, 양·다자협력 고도화 등 ODA 혁신
- 아시아(37%) 및 아프리카(19%) 중점 지원, 선택과 집중 통해 효과성 제고

#### ◆ 과학기술·ICT ODA 추진전략

- 한국의 혁신역량과 경험을 활용해 개도국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 지원
- 수원국별 혁신역량 수준에 따라 취약 부분을 맞춤형으로 지원

#### ◆ ODA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확대 방안

- ODA 인턴 등 실무형 인재양성 사업 확대 및 체계적 경력성장 지원
- ODA 인력의 취업환경 개선 및 개발협력 일자리 생태계 조성

□ 김부겸 국무총리는 1월 27일(목) 오후 정부서울청사(별관)에서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\*(위원장: 국무총리)를 주재했습니다.

\* 「국제개발협력기본법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

※ 참석 : △(위촉위원) 최재훈, 홍은표, 이근, 안상훈, 최창용, 장혜영, 김태균, 최아름 위원

△(당연직위원) 기재부·문체부·해수부 장관, 국조실장, 교육·외교·행안·농식품·복지·환경·여가·국토부 차관, 수출입은행장, 국제협력단 이사장

※ 배석 :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

□ 이날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가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책무 이행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고,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국제개발협력(ODA)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,

○ 올해 추진할 정책과제와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.

□ 위원회에서는 올해 ODA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이 포함된 ①「'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」과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②「과학기술·ICT ODA 추진전략」을 의결하였습니다.

○ 이와 함께, 신규 중점협력국가(5개국)\* 등 ③「11개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」과 ODA 생태계 조성을 위한 ④「ODA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확대 방안」 및 ④「'22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계획」까지 총 5건의 안건을 심의·확정하였습니다.

\* 현재 중점협력 대상 국가는 총 27개국이며, 양자 ODA의 70% 이상을 투입하고 있음

○ 안건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## 1. '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(확정액 기준)

◆ '22년 ODA 확정 규모는 4조 425억원('21년 대비 2,882억원, 7.7% 증가)

◆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글로벌 현안 대응 선도

\* 코로나19 위기 종식 및 경제·사회 회복, 기후위기 대응 및 인도적 지원 집중 지원

◆ 패키지사업 활성화, 개발자원 다양화 등 ODA 혁신 다각화 추진

□ 정부는 '22년 시행계획을 통해, 올해 ODA 사업 규모를 작년 3조 7,543억원보다 2,882억원 증가한 4조 425억원으로 확정하고,

○ 총 88개 수원국 및 61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, 44개 기관(11개 지자체 포함)에서 1,765개의 사업('21년 1,699개)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※ 붙임1 : 국제개발협력(ODA) 현황(확정액 기준)

□ 정부는 올해 처음 4조원을 돌파한 ODA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종식과 개도국 경제·사회 회복을 위한 국제협력에 역량을 집중하면서,

○ 기후변화 대응, 디지털 전환, 취약국가·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에도 중점을 두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책무를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□ 이를 위해 지역별로는, 신남방 ODA 전략 이행 등 아시아(37.0%) 중심 지원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지원 비중(18.8%)을 확대하고,

\* 아시아(37.0%) > 아프리카(18.8) > 중남미(7.7) > 중동·CIS(5.1) 順

○ 분야별로는,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(13.2%) 및 인도적 지원(9.8%)에 중점을 두면서도, 교통(13.1%), 교육(9.1%), 공공행정(7.7%) 등 우리나라에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도 고르게 지원할 계획입니다.

□ 또한, 정부는 ODA의 질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 ODA를 대표할 수 있는 패키지사업\*을 적극 기획·발굴하고,

\* (예시: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) ▲(유상) 음압병실 및 실험실 구축  
▲(무상) 검사인력 교육·훈련 ▲(기업 CSR) 진단키트 제공 ▲(NGO) 기초위생 인식 제고

○ 민간재원 활용 등을 통한 개발재원 규모 확대 및 다양화, 국내외 개발협력 주체와의 파트너십 선진화 등 지속발전 가능한 개발협력 생태계 조성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.

## 2. 과학기술 · ICT ODA 추진전략

◆ 한국의 혁신 역량과 경험을 활용해 개도국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 지원

◆ 6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개도국 사회·경제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

\* ① 공공행정 ② 도시개발 ③ 농수산업 ④ 교육 ⑤ 보건의료 ⑥ 기후·에너지

□ 정부는 '한국형 디지털 모델'의 확산을 통해 개도국의 위기 회복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촉진하고자 범정부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.

○ 디지털 전환은 글로벌 경제위기 회복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로 강조되고 있으나, 개도국은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위해 과학기술·ICT 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

○ 한국은 최고의 혁신 역량\*을 보유한 개도국 지원의 최적 파트너이며, 디지털 관련 ODA를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는 국가입니다.

\*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('21.2월), OECD 디지털정부 평가 1위('20.11월) 등

\*\* 디지털 전환을 위한 ODA 중 국가별 비중(OECD 연례보고서, '22.1월)

: (한국) 18.2%, (미국) 13.4%, (EU) 11.5%, (독일) 10.6%, (프랑스) 7.1% 順

□ 우선, 개도국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도록 개도국의 과학기술·ICT 혁신 역량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.

○ ODA 사업에 수원국이 수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, 도전적 기술이 적용된 경우에는 교육훈련 등 후속사업을 통해 기술의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.

○ 또한, 기술발전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한편, 디지털 격차 완화 등 포용적 전환도 추진하겠습니다.

□ 둘째, 6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·ICT를 결합하여, 개도국 사회·경제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.

○ ①공공행정분야에서는 한국형 디지털정부를 확산하고, ②도시개발 분야에서는 대형 스마트시티·교통 등 모범사례를 창출하겠습니다.

- ③농수산분야에서는 스마트팜 등을 통해 개도국의 생산성 증대를 지원하고, ④교육분야에서는 디지털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.
  - ⑤보건의료분야에서는 방역·의료체계의 스마트화 및 원격의료 등을 활용한 의료접근성 제고를, ⑥에너지·기후분야는 스마트 전력시스템 보급 및 ICT 기반 기후변화 대응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.
- 아울러, 우리의 높아진 국제위상을 바탕으로 과학기술·ICT ODA와 관련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- UN 디지털협력대화(장관급) 등 글로벌 협의체에서 논의를 주도하고, 국제기구 및 선진공여국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겠습니다.
- 앞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범정부 거버넌스를 강화하여, 정부, 공공, 민간, 국제기구를 아우르는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·수행하는 등 성과를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.

### 3. 11개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

- ◆ 5개 신규 중점협력국(‘21.1월 지정) 및 최근 수원환경 변화가 발생한 6개 중점협력국 대상 중장기 ODA 협력전략(국가협력전략) 수립·수정
- ◆ 그린·디지털·보건 등 전략 분야 위주로 선정된 중점협력분야에 집중 지원

- 정부는 제3기 중점협력국(27개국) 중 총 11개 국가와의 국가협력 전략\*을 새롭게 수립 또는 수정하였습니다.

\* 국가협력전략(Country Partnership Strategy ; CPS) : 개별 중점협력국에 대하여 중점협력분야, 분야별 협력방향 등을 담은 최상위 ODA 지원 전략

- ‘21.1월 중점협력국으로 새롭게 지정된 인도, 이집트 등 5개국\*의 국가협력전략을 수립하고, 최근 정치상황 등 수원환경 변화가 발생한 네팔, 방글라데시 등 6개국\*\*의 국가협력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.

\* 인도, 이집트, 우크라이나, 키르기스스탄, 타지키스탄

\*\* 네팔, 방글라데시, 스리랑카, 인도네시아, 세네갈, 르완다

□ 이번 CPS는 수원국 발전에 긴요한 분야를 한국이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점협력분야와 지원방향을 선정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,

- 수원국 개발수요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CPS 적용기간을 수원국의 개발계획 이행기간과 일치시켰습니다.

\* (기존) ‘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’ 기간과 동일 → (개선) 수원국별 개발계획 기간과 일치

□ 중점협력 분야\*로는 그린, 디지털, 보건·의료와 관련된 분야\*\*가 상당수 선정되었습니다.

\* 중점협력국별 양자 ODA 예산 중 70% 이상을 동 분야에 집중 지원할 예정

\*\* (그린) 환경, 그린에너지, 물관리 등 (디지털) 통신, ICT, 공공행정 등 (보건) 물관리, 보건위생, 의료 등

- 이들 분야는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으며, 글로벌 회복의 핵심 요소로 강조되는 만큼, 향후 해당 수원국의 발전뿐 아니라 한국과의 협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#### < 국가별 중점협력분야 >

구분	국가명 (CPS 적용기간)	중점협력분야
신규 CPS 수립 (5개국)	인도(~'25)	①지역개발 ②교통 ③물관리·보건위생 ④환경 ⑤그린에너지 ⑥ICT
	이집트(~'26)	①교통 ②환경·에너지 ③공공행정 ④교육 ⑤통신
	우크라이나(~'24)	①교통 ②산업 ③보건위생 ④공공행정
	키르기스스탄(~'27)	①환경 ②농림수산 ③공공행정 ④보건위생
	타지키스탄(~'25)	①산업 ②교육 ③에너지 ④농림수산 ⑤교통
기존 CPS 수정 (6개국)	네팔(~'24)	①물관리·보건위생 ②교육 ③지역개발 ④에너지
	방글라데시(~'25)	①교육 ②교통 ③물관리·보건위생 ④공공행정
	스리랑카(~'25)	①교육 ②교통 ③물관리·보건위생 ④지역개발
	인도네시아(~'24)	①교통 ②공공행정 ③환경보호 ④물관리·보건위생
	세네갈(~'23)	①지역개발·농림수산 ②교육 ③보건의료 ④교통
	르완다(~'24)	①농업 ②교육 ③ICT

□ 앞으로 CPS를 토대로 국가별 지원사업을 발굴·추진할 예정이며, 나머지 16개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도 적시에 수정해 나가겠습니다.

\* '22년에는 라오스, 베트남, 에티오피아, 우간다, 탄자니아 5개국 수정 예정

#### 4. ODA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확대 방안(안)

- ◆ ODA 인턴 등 실무형 인재양성 사업 확대 및 체계적 경력성장 지원
  - \* 코이카 현지사무소 등 ODA 인턴 ('21년) 475명 → ('22년) 623명(31% ↑)
- ◆ ODA 인력의 취업환경 개선 및 개발협력 일자리 생태계 조성 지원

□ 정부는 우리나라의 ODA 수행 역량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, ODA 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- 우선, 해마다 배출되는 해외봉사자와 대학 전공자 등 초급인력 (약 4천명)을 대상으로 코이카의 경력사다리 프로그램\*을 통해 체계적으로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.

\* (1단계) 봉사단·인턴 → (2단계) 징검다리 일자리(다자협력 전문가 등) → (3단계) ODA 일자리 진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역량교육 제공

- 아울러, 코이카의 ODA 인턴 등 실무경험 기회를 확대하여 현장 적응력 높은 인력의 배출 비중을 늘려나가는 한편,

\* 코이카 현지사무소 등 ODA 인턴 ('21년) 475명 → ('22년) 623명(31% ↑)

-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추진 시 한국인 채용도 추진할 계획입니다.

□ 정부는 이러한 인력들이 ODA 분야에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일자리 생태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고,

- 개발컨설팅 전문기업 육성 등 ODA 인력의 취업환경 개선과 함께 기업, 시민사회와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.

#### 5. '22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계획(안)

- ◆ 총 32개 기관이 234개 ODA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시행 → 개선·보완 추진
- ◆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'기관역량진단' 등을 통해 각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역량 개선 지원

-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책임있는 이행과 성과 제고를 위해 「'22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계획」을 수립했습니다.
- 기재부·외교부 등 총 32개 기관은 자체평가를 통해 기관별 핵심 ODA 사업(총 234개)을 스스로 평가하고,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.
- 이와 함께, 범국가적 추진이 필요한 ODA 전략 등 국제개발협력 위원회가 직접 평가하는 과제도 확정하였습니다.
- 금년에는 ▲ODA 기관역량진단, ▲국가협력전략(CPS) 평가, ▲정책자문사업 평가 등 3건의 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.
- 정부는 특히, 올해 처음 도입되는 'ODA 기관역량 진단\*'에 중점을 두어, 범정부적 성과관리 제도의 핵심 수단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.

\* 각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역량을 국개위가 종합 진단(기관별 2년 주기)

- ※ (붙임) 1. '22년 국제개발협력(ODA) 현황(확정액 기준)  
 2. 「과학기술·ICT ODA 추진전략」 개요  
 3.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촉위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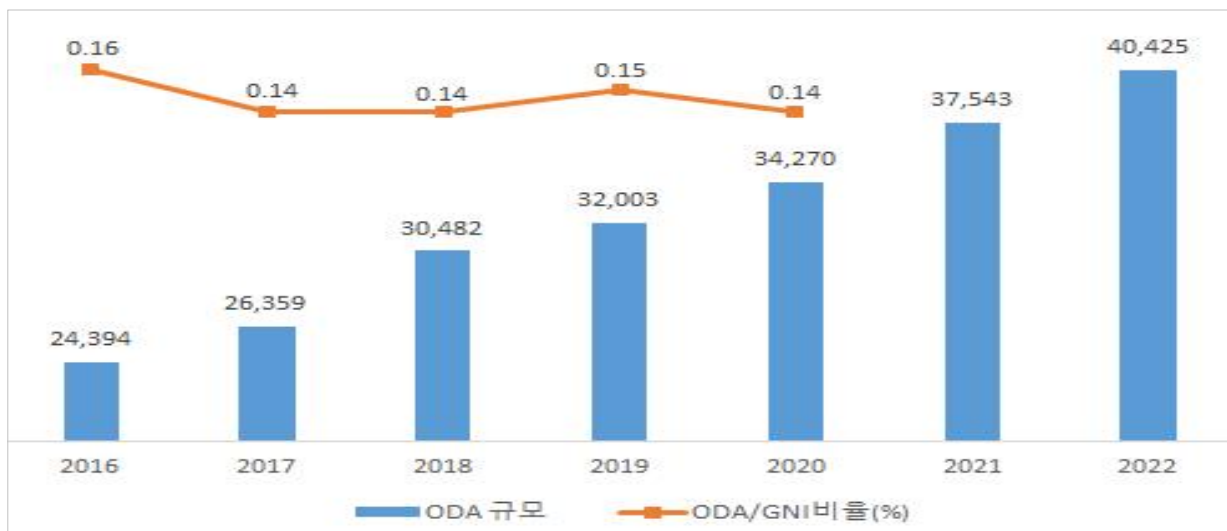


□ (총 규모) ‘22년 ODA 확정액 규모는 약 4조 425억원으로,  
총 44개 기관 1,765개 사업 추진

- (ODA 규모) ‘21년 3조 7,543억원 대비 2,882억원 증가(7.7% ↑)
- (참여기관) ‘21년 42개 기관 대비 2개 기관 증가(4.8% ↑)
- (사업 수) ‘21년 1,699개 대비 66개 사업 증가(3.9% ↑)

구분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
총ODA(십억원)	2,439.4	2,635.9	3,048.2	3,200.3	3,427.0	3,754.3	4,042.5
양자간원조 비중(%)	1,947.9 (79.9)	2,130.0 (80.7)	2,387.7 (78.3)	2,493.8 (77.9)	2,775.0 (81.0)	2,926.1 (77.9)	3,219.9 (79.7)
유상원조 비중(%)	893.7 (45.9)	954.5 (44.8)	1,058.1 (44.3)	1,141.2 (45.8)	1,184.9 (42.7)	1,258.2 (43.0)	1,333.4 (41.4)
무상원조 비중(%)	1,054.2 (54.1)	1,175.5 (55.2)	1,329.6 (55.7)	1,352.6 (54.2)	1,590.1 (57.3)	1,667.9 (57.0)	1,886.5 (58.6)
다자간원조 비중(%)	491.5 (20.1)	505.9 (19.3)	660.5 (21.7)	706.5 (22.1)	651.9 (19.0)	828.2 (22.1)	822.6 (20.3)

※ ‘21년 종합시행계획 수립(‘21.1.20, 제36차 국개위) 이후 ▲중요한 신규 사업수요  
▲연내 집행곤란 사업의 전용 필요성(미얀마 쿠데타) 등 일부 사업계획 변경사항 발생  
⇒ 시행기관별 사업계획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ODA 사업계획 수정(‘21.11월, 제39차 국개위)  
‘21년 최종 확정액 = 3조 7,101억원(당초 확정액) + 442억원(예산전용 및 예비비 순증)



## □ 주요 특징

○ **(유형별)** 총 ODA 중 양자협력 對 다자협력간 비율은 약 80:20, 유상협력 對 무상협력간 비율은 41:59 수준

- '21년 양·다자 비율(78:22)과 대비 양자협력 비율 1.8%p 증가

\* 양·다자 비율은 국제동향 및 대외정책 등과 연계하여 탄력적 운영(제3차 기본계획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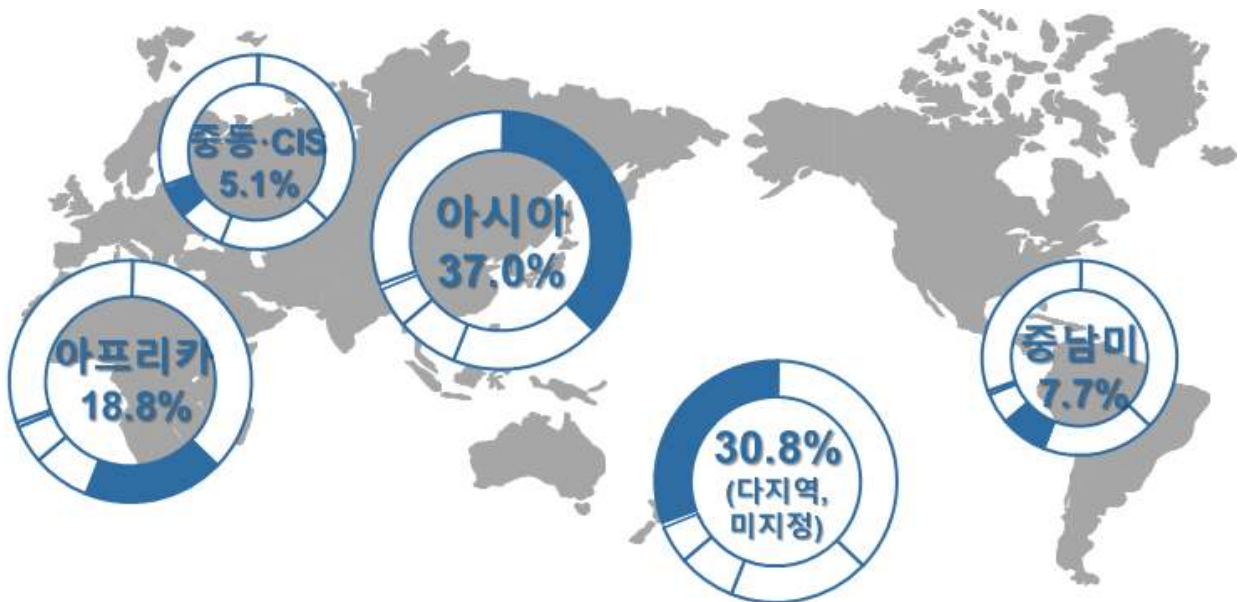
- '21년 유·무상 비율(43:57) 대비 무상협력 비율 1.6%p 증가

○ **(지역별)** 아시아, 아프리카 중심으로 지원

- '21년에 비해 아시아(38.4→37.0%), 중남미(8.1→7.7%) 지역의 비중이 감소하고, 아프리카(18.6→18.8%) 등 비중 증가

\* '21년 비중(%) : 아시아(38.4), 아프리카(18.6), 중남미(8.1), 중동·CIS(5.4), 오세아니아(0.4) 순

구 분	구분	아시아	아프리카	중남미	중동·CIS	오세아니아	기타
규모(억원)	유상	7,039	3,373	1,380	785	106	650
	무상	4,860	2,674	1,097	863	114	9,257
	총계	11,899	6,047	2,478	1,648	220	9,907
비중(%)	유상	52.8	25.3	10.4	5.9	0.8	4.9
	무상	25.8	14.2	5.8	4.6	0.6	49.1
	총계	37.0	18.8	7.7	5.1	0.7	30.8



\* 중점협력국 27개국 대상 약 79.1%(유상 84.5%, 무상 71.0%) 지원(다국가 사업 제외)

- **(분야별)** 보건(13.2%), 교통(13.1%), 인도적 지원(9.8%) 순이며, 공공 행정 분야 확대(6.9→7.7%) 등 분야별 비중 편차 축소

\* '21년 비중(%) : 교통(14.1), 보건(14.0), 인도적 지원(10.4), 교육(9.4%), 수자원 및 위생(8.3) 순

구 분	구분	보건	교통	인도적 지원	교육	수자원 및 위생	공공행정	농림수산	에너지	환경보호	산업	통신	기타
규모 (억원)	유상	2,470	3,776	-	571	2,242	891	610	1,470	394	-	200	710
	무상	1,780	448	3,163	2,362	244	1,581	1,788	425	441	820	34	5,779
	총계	<b>4,250</b>	<b>4,224</b>	<b>3,163</b>	<b>2,933</b>	<b>2,486</b>	<b>2,472</b>	<b>2,398</b>	<b>1,894</b>	<b>836</b>	<b>820</b>	<b>234</b>	<b>6,489</b>
비중 (%)	유상	18.5	28.3	-	4.3	16.8	6.7	4.6	11.0	3.0	-	1.5	5.3
	무상	9.4	2.4	16.8	12.5	1.3	8.4	9.5	2.3	2.3	4.3	0.2	30.6
	총계	<b>13.2</b>	<b>13.1</b>	<b>9.8</b>	<b>9.1</b>	<b>7.7</b>	<b>7.7</b>	<b>7.4</b>	<b>5.9</b>	<b>2.6</b>	<b>2.5</b>	<b>0.7</b>	<b>20.2</b>

- **(형태별)** 프로젝트(66.4%) 중심으로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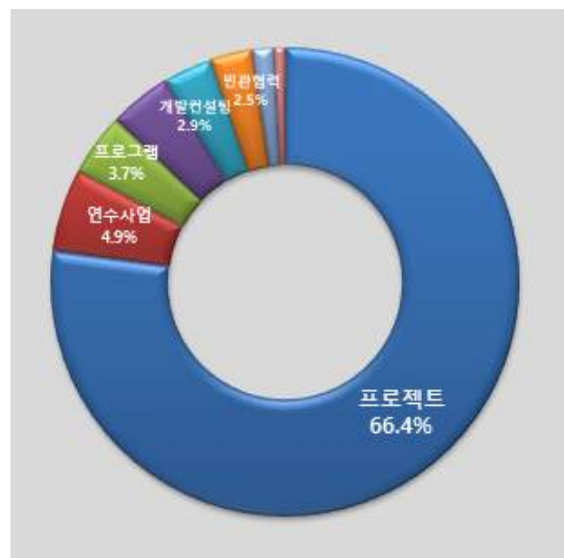
\* '21년 비중(%) : 프로젝트(67.5), 연수사업(4.6), 개발컨설팅(3.3), 민관협력(2.7) 순

구 분	구분	프로젝트	연수사업 (강원지원 포함)	프로그램	봉사단 파견	개발 컨설팅	민관협력	행정비용	기타 기술협력	기타
규모 (억원)	유상	12,734	-	600	-	-	-	-	-	-
	무상	8,653	1,572	590	1,184	934	811	420	215	4,486
	총계	<b>21,387</b>	<b>1,572</b>	<b>1,190</b>	<b>1,184</b>	<b>934</b>	<b>811</b>	<b>420</b>	<b>215</b>	<b>4,486</b>
비중 (%)	유상	95.5	-	4.5	-	-	-	-	-	-
	무상	45.9	8.3	3.1	6.3	5.0	4.3	2.2	1.1	23.8
	총계	<b>66.4</b>	<b>4.9</b>	<b>3.7</b>	<b>3.7</b>	<b>2.9</b>	<b>2.5</b>	<b>1.3</b>	<b>0.7</b>	<b>13.9</b>

< 분야별 비중(기타 제외) >



< 유형별 비중(기타 제외) >



비전

협력과 연대를 통한  
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

목표

한국형 디지털 모델 확산으로  
개도국의 위기 회복과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 달성 촉진

추진전략

수원국 역량별  
과기·ICT  
역신 지원

- 수원국 수용성을 감안한 체계적 지원
- 선순환을 위한 포용적 과기 · ICT 생태계 조성
- 양국간 상생 협력 확산

분야별  
디지털 전환  
촉진  
(6대분야)

- 공공행정 : 한국형 디지털정부를 활용한 공공행정 스마트화
- 도시개발 : 대형 스마트시티 · 스마트교통 등 모범사례 창출
- 농수산업 : 스마트팜 등 생산성 제고 및 산업구조 고도화
- 교육 : 이러닝 등 양질의 교육 제공 및 교육격차 완화
- 보건의료 : 감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체계 스마트화
- 에너지 · 기후 : 스마트그리드 등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 마련

과기·ICT ODA  
글로벌  
협력 강화

- 글로벌 이니셔티브 선도
- 국제사회와의 공동협력 강화

추진체계

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범정부 거버넌스 강화

▲ 사업 간 연계 강화 ▲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▲ 현지거점 확보

연번	성명	사진	주요 경력
1	최재훈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現 TBO 헬스케어 대표이사</li> <li>• 前 UAE 왕립병원 최고운영책임자</li> <li>• 前 서울대학교 병원 자문위원</li> <li>• 前 (주) 이지메디컴 대표이사</li> </ul>
2	홍은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現 SGH Korea 대표이사</li> <li>• 現 UN Academic Impact Korea 자문위원</li> <li>• 前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</li> <li>• 前 OECD DAC 선임분석관</li> </ul>
3	강명욱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現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비상임위원</li> <li>• 現 (사)한국국제개발연구소 대표</li> <li>• 現 (사)민족사랑나눔 전문이사</li> </ul>
4	이근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現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</li> <li>• 現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</li> <li>• 現 다보스포럼 한국위원회 의장</li> </ul>
5	권순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現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</li> <li>• 現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(원장 역임)</li> <li>• 前 ADB, Chief of Health Sector Group</li> </ul>
6	윤미경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現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</li> <li>• 前 국민경제자문회의 대외경제분과 위원</li> <li>•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</li> </ul>
7	안상훈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現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</li> <li>• 前 기획재정부 부총리 자문관</li> <li>• 前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</li> <li>• 前 세계은행 자문관</li> </ul>
8	최창용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現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(국제개발 정책학)</li> <li>• 前 민주평통 상임위원</li> <li>• 前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실장</li> </ul>
9	장혜영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現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조교수</li> <li>• 現 국제정치논총 편집위원</li> <li>• 前 국제개발협력학회 연구이사</li> </ul>
10	김태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現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</li> <li>• 現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</li> <li>• 前 UNESCO 컨설턴트</li> <li>• 前 UNRISD 협력연구원</li> </ul>
11	양진욱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現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대표</li> <li>• 現 아동권리보장원 이사</li> <li>• 前 굿네이버스 회장</li> <li>• 前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(KCOC) 이사</li> </ul>
12	최아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現 '닷(Dot)' 소셜임팩트 디렉터('15년 ~)</li> <li>- 소셜벤처 닷, 장애인을 위한 혁신 보조기기 연구 개발</li> <li>- KOICA, 케냐·인도 CTS 사업 수행</li> <li>• UN World Summit Award 수상</li> </ul>